

##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본 박물관의 역할변화

- 근대 이후 박물관 프로그램의 새로운 경향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Changing Role of Museum from the Socio-Cultural Point of View

- Based on the New Trend of Museum Programs in After Modern Age -

정용재\* / Chung, Yong-Jae

신범식\*\* / Shin, Buhm-Shik

### Abstract

This study looks into the change of the concept of museum and the programs as well from sociocultural point of view. Since the very beginning in history, the museum has been a place to educate people with diverse evidences regarding on the human history by preserving legacies of the past. Throughout the long history, the concept of museum and its programs have been revised in accordance with social changes. Consequently, these changes brought the transformation of museums' roles nowadays. The reason is the public in diverse society are so accustomed to stimulus and dynamic cultural changes has induced those change in some senses. The study points that the variation of museum programs are to be developed and museum marketing strategies including global management of art museums should seriously be considered. It also brings new form of museum architecture. The concept of revitalizing museum can expand the band of public and provide them opportunities a place for various cultural activities which can lead a new trend in this society.

키워드 : 박물관 개념, 사회적 현상, 프로그램 변화, 새로운 경향

Keywords : The concept of museum, Social phenomenon, Change in program, New trend

## 1. 서론

###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우리는 오래된 것을 존중하는 태도가 언제 시작 되었으며 그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히 모른다. 그것은 오래전 인간이 예술품을 만들고 그러한 예술품은 일부 특권층만이 누릴 수 있는 권위의 상징이었으며 그러한 권력을 오랫동안 보존하기 위하여 담아내는 공간의 발생이 박물관의 시작이다.

과거 특권층의 전용물로서 지속되어오던 박물관이 대중과 관계를 맺게 되면서 그 역할은 발전되기 시작하였고 그것은 인류의 역사적 변천과 무관하지 않다. 또한, 아놀드 하우스의 '떠나온 것이 반드시 더 오래 되었을 거라는 느낌은 오늘날까지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믿음은 권력의 이데올로기로서 정치와 국민 계몽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어지기도 하였으며 역사의 흐름을 통해 오랜 전통의 한 부분으로 일반 대중들과 가까워지는 계기가 마련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런 역사적인 견해가 어찌 되었건 오늘날 박물관은 지난 세월동안 보관, 진열 중심의 운영에서 벗어나 관람자가 만져보고 느끼는 전시로, 또 여러 장르의 공연이 이루어지며 사람들이 만나는 장소로 변모되고 있다. 이 같은 오늘날 박물관의 변화는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삶의 패턴과 인식의 변화에 대응하여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러한 문화적 현상이 그 문화가 속한 사회의 표현이라면 박물관의 이 같은 변화는 마땅히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분석 검토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박물관의 기능과 역할 변화의 주된 원인이 사회적인 변화에 있음을 정의하고 최근 사회적 변화에 따른 일반 대중의 교육, 소득, 여가, 문화적 인식의 향상으로 과거의 박물관이 지향했던 전시와 교육이라는 역할을 넘어선 변화로 현대 사회에 적합한 박물관의 나아갈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 정회원, 한양여자대학 인테리어디자인과 교수

\*\* 정회원, 서울시립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 본 논문은 한양여자대학 2008년도 2학기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한 결과임

## 1.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수집위주의 공간이었던 박물관<sup>1)</sup>이 최근 관람객 확보를 위하여 여러 기능이 복합된 전시, 교육, 여가의 공간으로 확장된 과정을 살펴보기 위한 연구의 방법으로 박물관의 역사적 변천 과정을 2장에서 18세기 이후 국의 경우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기술하고, 3장에서는 문헌 연구를 통하여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사회적 현상에 의한 대중의 인식 변화에 기인한 박물관 변천과정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4장에서 대중에게 다가가기위한 박물관의 새로운 변화 내용을 첫째, 복합문화공간으로서, 둘째, 확장된 영역으로, 셋째, 상업적인효과로서 갖는 특징을 사례조사와 분석을 통하여 연구 한다.

## 2. 박물관개념의 역사적 고찰

박물관의 역사가 시작된 18세기 이후 19세기 말까지 박물관은 엘리트 지향적이었고 선택된 일부의 사람만이 이를 누릴 수 있는 장소였다. 유럽의 역사를 살펴 볼 때 시민혁명과 산업혁명은 박물관이 일반인들을 향하여 대중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20세기에 이르러 일반 대중의 예술에 대한 관심은 전시물을 통한 교육과 여가공간으로서의 가치를 더하는 박물관 역사에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되게 된다. 사회적 현상과의 관계를 살펴보기 전에 박물관의 역사적 고찰은 더욱 필요하리라 판단된다.

### 2.1. 18-19세기 박물관

18세기는 역사에서 언급하는 산업혁명에 의한 근대로 전환되는 시기로 공공박물관의 발전이 한층 두드러져 영국은 1753년 슬로안(Hans Sloane)경의 컬렉션을 중심으로 국립박물관이 개설되어 공개의 움직임이 시작 되었다. 이와 전후하여 1748년 오스트리아 빈에 자연사 박물관, 1764년에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에르미타주미술관 등이 설립되었다. 그러나 이시기에 설립된 이들 박물관들은 당시 일반에게는 공개되지 않았다.

일반 대중에 공개한다는 개념은 1789년 7월 14일 프랑스 대혁명으로 인해 왕정에서 시민 사회로 바뀐 루브르박물관이 시민을 위한 국립미술관으로 개관(1793)되면서 시작되었다. 이어서 프랑스의 영향으로 네덜란드, 헝가리, 체코, 스페인 등 유럽 여러 나라에서 국립미술관들이 개관되면서 대중에게 공개되는 것이 보편화 되었다.

한편 1851년 런던에서 개최된 제1회 만국박람회는 세계적으로 최초 각국 산업 생산품을 전시하였다. 세계적인 산업화를 가속화한 만국박람회의 결과 전통 공예품을 진열 보존하는 공

예품 박물관(Museum of manufacture)이 설립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19세기 후반 유럽 각지의 공예박물관이나 과학박물관이 설립되는데 큰 영향을 주었다. 즉 각종 생산품들을 대중에게 알리는 전시의 개념이 확산되는 의미를 갖게 된다.

한편 1854년 영국 의회에서 박물관령(Museum Art of 1854)이 공포 되면서 박물관의 성격과 역할이 한층 명백하게 되기 시작했으며 이로 인해 공립 박물관들이 설립되기 시작 했다.

19세기 후반에 이르러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자국민에게 그들의 역사와 문화적 궁지의 표상으로서 그리고, 이에 관련한 내용들을 교육하려는 의도로 박물관을 설립하고 운영프로그램을 만들어 일반 대중을 위한 공공문화시설로서 성격이 짝하게 된다.

### 2.2. 20세기 이후 박물관

20세기에 들어서서 대규모 박물관이 창설되는 시기를 맞게 되면서 북유럽에서는 많은 야외 박물관들<sup>2)</sup>이 연속하여 건설되었다. 그 내용에 있어서도 전문적이며 관람자가 직접 참여하는 전시를 선보이게 되는데 그 예로 오스칼 후웅 미라는 독일 뮌헨에 과학박물관을 설립(1906) 하였다. 이곳에서는 오늘날 과학관에서 보여 지는 여러 가지 교육적 배려와 기술이 도입되었으며 관람객이 전시물을 직접 작동하며 실험에 참여하여 과학기술에 관심과 이해를 불러일으키는 동기를 마련하기도 했다.

같은 시기에 미국은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이 임시건물에서 소규모로 개관(1870)하였다가 대규모 개축으로 근대식 전시장을 완공(1954)하게 된다. 이처럼 서구는 근대 사회로 전환되면서 박물관의 대중적 공개 확대는 박물관의 발달을 촉진시켜 새로운 박물관의 신설과 기존 박물관의 증, 개축을 야기하며 각 나라마다 자국 문화의 척도를 나타내는 공간으로 오늘에 이르는 역사적 흐름을 볼 수 있다.

## 3. 박물관과 사회적 현상의 관계

고대로부터 인간은 사회를 떠나 존재할 수 없다. 던<sup>3)</sup>은 “어떤 인간이라도 그 자체만으로 하나의 완전함을 갖추는 섬이 될 수 없다. 모든 인간은 대륙의 한 조각과 같고 본토의 일부와 같다.”고 피력하였다.<sup>4)</sup> 인간이 이루어낸 역사와 문화, 예술 또한 사회적 현상과 밀접하게 관계하고 있어 그 시대의 생각과 생활의 표현인 예술품을 담아내는 박물관 역시 그 문화가 속한 사회의 구조적 표현임을 알 수 있다. 역사적 고찰을 통하여 박

1)본 연구에서 박물관이라는 개념은 2007년 개정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2조 '정의'에서 문화, 예술, 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 향유 증진에 이바지하기위한 시설이라는 관점에서 두 개의 개념을 따로 구별하지 않고 광의의 개념으로 박물관으로 통일하여 사용 한다.

2)덴마크 프리랜드박물관(Fililandsmuseet, 1901), 노르웨이 민속박물관(Norwegian Folk museum, 1902) 필란드 세우라세리아외박물관(Seurasaaren Ulkomuseo 1909), 네덜란드 알소레인야외박물관(Arnhem, 1919)

3)John Donne(2573~1631), 영국의 시인, 형이상학적 시인의 거장

4)E.H.Carr, 역사란 무엇인가, 김승일역, 범우사, 1998, p.56

물관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 되어온 과정의 배경에는 사회적 현상이 큰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문헌 연구를 통하여 분석하여 향후 박물관 활동프로그램을 어떻게 구성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지표로 논의 하고자 한다.

### 3.1. 국내박물관

일제강점기를 거쳐 해방 후 우리나라는 사회,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궁핍, 그리고 한국전쟁 후 피해로 인해 문화 계획을 기대하기 어려웠던 일련의 역사적 혼돈시기를 겪어 왔다. 그러나 1980년대에 이르러 경제적 발전과 함께 문화가 사회 통합과 가치관 순환의 역할을 한다는 인식이 보편화되어 문화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서서히 형성되기 시작했다. 이즈음에 우리나라에서는 ‘박물관법<sup>5)</sup>’이 최초로 제정(1984)되었고, 이 법 내용에서 박물관이 수집, 보존, 전시 외에 대중의 사회교육에 관심을 두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나아가 1990년 1월에는 정부가 문화부 신설을 시작으로 국민의 문화 복지 실현에 중점을 두기 시작하는 정책적 인식 변화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정책적 변화는 한걸음 더 나아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sup>6)</sup>(1991)이 새롭게 제정<sup>7)</sup>되었다.

새롭게 제정된 박물관 법은 과거의 박물관법과 비교하면 자연을 동물· 식물· 광물로 구체적인 언급을 하였으며 일반 대중의 사회교육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했던 과거의 법에서 문화· 예술 및 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교육에 이바지하는 보다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한 확대된 박물관 개념을 의미한다.

확대된 박물관 개념을 토대로 문화부는 문화 복지 실현을 국가 발전과 연계시켜 ‘문화발전 10개년 계획’(1990-1999)을 설정하고 ‘모든 국민에게 문화를’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규정하고 미술관 큐레이터 양성과 예술가들의 공동 작업장 설치, 일반인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정책 실현을 단계적으로 진전시켰다.

1998년에는 문화관광부가 새롭게 발족하면서 21세기 문화의 세기를 앞두고 문화국가 실현을 위한 1도 1미술관 건립을 추진하였고 2004년도에는 문화 행정의 기본 방향으로 ‘창의 한국(Creative Korea)’과 ‘새 예술정책’을 수립 발표하였다. 창의성(creativity), 다양성(diversity), 역동성(vitality)의 세 가지 핵심

5)제2조 ‘박물관이라 함은 인류 역사, 고고, 민속, 예술, 자연, 과학, 산업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 보존, 전시하고 이들을 조사, 연구하여 일반 대중의 사회교육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6)‘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은 1991년 기존의 법보다 박물관에 대한 지원 제도를 강화하여 작은 박물관과 설립과 등록을 촉진하여 국민의 문화 향수권 신장 강화 됐다. (출처:http://www.moca.go.kr/Modern)

7)개정된 법에서는 ‘박물관이라 함은 인류· 역사· 고고· 민속· 예술· 동물· 식물· 광물· 과학· 기술· 산업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 보존· 전시하고 이들을 조사· 연구하여 문화· 예술 및 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교육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하였다.

키워드를 내세우며 개인의 창의성이 곧 지역사회의 다양성과 국가의 역동성을 만드는 근간이 됨을 의미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책은 일과 여가가 조화를 이루는 문화를 즐기는 사회로 발돋움 시키려는 취지의 문화정책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 3.2. 해외박물관

고대 이집트 사회는 종교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었고, 다양한 신을 위한 제사는 귀중한 물건들이 모일 수 있는 사회적 기회였다. 신에게 진귀한 물품을 바쳐 자신의 안위를 지키려했던 당시의 보편적인 사회의 통념에 따라 신전에 바쳐진 물품들을 ‘수집품’이라는 의미로서 박물관의 개념과 형태가 시작되었다.

신에게 바쳐진 귀중한 물건들에 대한 보관과 진열은 현재의 박물관에서처럼 명칭, 재료, 무게 등이 세밀하게 쓰여 있으며 어떤 신에게 바쳐진 것인지 기원하는 사람의 이름, 날짜, 국적이 표기<sup>8)</sup>되었다. 오래되어 쉽게 보기 힘든 귀한 물건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고대로부터 이어져 왔으며 이러한 예술품을 소유하려는 사회적인현상은 자신의 지위를 과시하려는 사회적 인경향으로 나타났다.

서로마제국(395-479)의 멸망 후 시작된 중세시대는 미술품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종교가 중심이 되어 높아지게 되었으며 예술품들은 교회의 보물로서 오로지 신을 숭배하고 찬미하는 징표로서 제작되었다. 이러한 현상에 따라서 교회가 자연스럽게 박물관 역할을 하게 되었다.

르네상스 시대에 접어들면서 상업에 의한 신흥 귀족과 부호들이 새롭게 등장하여 그들에 의해 수집되었던 미술품이나 기타 수집품들을 제한적이지만 예술가나 학자에게만 드물게 관람을 허용했다. 금융업을 통해 축적한 재산으로 여러 분야의 예술가들을 지원했던 코시모 메디치 (Cosimo di Giovanni de' Medici, 1389~1464)는 “예술가는 존중되어야 하며 다른 후견인들처럼 예술가를 그저 장인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sup>9)</sup>고 말했다. 예술가에 대한 깊은 관심과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던 코시모는 기회가 있을 때 마다 희귀본과 귀중본, 원고들을 수집하여 연구를 희망하는 지인들에게 공개하였다.

즉 메디치가 궁전을 출입했던 많은 인문주의자들에게 자유롭게 자료를 이용하도록 하였으며 수많은 서책이 저장된 방대한 메디치궁의 도서관은 후에 바티칸 도서관의 모델이 되었다.<sup>10)</sup> 이후 메디치가의 마지막 후계자인 안나 마리아(Anna Maria Luisa de' Medici 1667~1743)는 선조들이 수집한 예술품 모두를 피렌체에 남겼으며 어느 것도 피렌체 밖으로 반출되지 못하도록<sup>11)</sup> 조치하여 피렌체가 문화 도시로서 명성을 얻

8)Bazin,G., The museum Age, De Soer Brussels, 1967, p.14

9)크리스토퍼 히버트, 메디치가 이야기, (주)생각나무, 2001, p.120

10)위책, p.91

게 되었다. 예술품이나 귀중한 책등의 수집 보관이 궁극적으로 민족의 문화 수준을 가늠하게 하는 단적인 예이다.

<표 1> 박물관과 사회적 현상과의 관계

시기	명칭	공간개념	사회적 현상
그리스 (AD 5세기)	델포이신전 Delphoe	신전의 보고와 성소 가능	자신의 안위를 위하여 고 귀한 물품들을 신께 바치 는 행위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AD 3세기)	무세이온 Museion	여신 뮤즈에게 바치는 신전	
중세시대	교회	신께 예배드리는 장소	신을 숭배하고 찬미하는 정표로 제작된 미술품들 로 실내장식에 박물관 역할을 함
르네상스	팔라초메디치 Palazzo Medici	가정박물관	상업에 의한 신흥 귀족의 방대한 소장품들을 예술 가를 위해 제한적 공개
17-18세기	에쉬몰리언 박물관 Ashmolean 1683	옥스퍼드대학 대학박물관	골동품 수집가의 소장 유물을 대학 또는 국가에 기증하여 교육에 활용
19세기	프랑스 루브르궁 Le musée du Louvre 1793	공공미술관으로 개방	프랑스 시민혁명에 의해 대중에게 공개 전시함. 이 는 중부유럽의 박물관 설 립을 촉진시켰다
	영국 빅토리아 알버트 박물관 Vixtoria and Albert Museum 1899	제1회 만국대박람회 때에 전시물들을 계속 전시 관람 할 수 있는 공예품 박물관	산업혁명에 힘입어 박물 관 건설의 전성기를 이룬 다.

이 시기에는 개인의 수집품들 일부가 대학에 기증되기도 하여 오늘날의 대학박물관을 형성하는 기초가 되기도 했다. 예를 들면 골동품 수집가였던 영국인 에쉬몰리언(Ashmolian)경은 자신이 소장하고 있던 유물들을 옥스퍼드 대학에 기증하였고 그는 유물들이 교육에 활용되고 아울러 일반에게도 전시할 것을 요구하여 에쉬몰리언(Ashmolian Museum) 박물관<sup>12)</sup>의 설립(1683)은 박물관이 대중에게 다가가는 초석이 되었다.

17-18세기의 박물관은 미술품과 자연물의 개인적인 수집으로서 일부 계층에게만 관람에 국한되었다. 이 경우는 하루 30명 정도만 관람 신청을 받아서 입장 시켰다는 대영박물관(The British Museum, 1854)경우이며 근대적 의미에서 박물관이 일반에게 공개된 것은 프랑스 혁명 후의 루브르 박물관에서 행해졌다.<sup>13)</sup> 19세기 혹은 '19세기'라는 말로 우리가 흔히 이해하는 시대는 1830년경에 시작한다. 19세기의 토대와 윤곽이 형성된 것은 프랑스 7월 왕정<sup>14)</sup>기간 중이다. 19세기의 모든 특징들은 이미 1830년경에 드러나는데 부르주아는 완전히 권력을 소유하

고 귀족은 역사의 무대에서 퇴각하여 순전히 개인적인 생존을 유지하며, 시민 계급의 승리는 의심할 여지없이 명백해진다.<sup>15)</sup> 왕실의 수집품은 시민에게 넘어가 공개되고 박물관의 공공성은 점차 자리 잡아 가게 된다.

사회적으로 증가하는 대중의 호기심과 계몽주의에 영향을 받은 지식층의 압력으로 루브르의 소장품을 일반에게 공개시키려는 시도가 계속되었고 이것은 프랑스 혁명(1793)을 계기로 마침내 결실을 맺게 되어 사실상 최초의 공공 박물관으로 명성을 얻게 되었다.<sup>16)</sup> 이것은 현대 박물관 개념에 접근한 최초의 박물관의 출현이라는 측면에서 프랑스 혁명이라는 정치 사회적 현상의 변화가 주요인임을 알 수 있다.

시민혁명을 계기로 19세기 초 특히 중부 유럽에서는 여러 나라에서 국민의식의 변화에 따른 박물관 설립이 촉진되었다. 헝가리 의회는 페스트에 국립박물관을 설립(1802)했으며, 체코 슬로바키아의 프라하에서도 국민의 주체의식을 고양하기 위해 박물관을 설립(1818)했다.

독재 군주국가에서는 왕실들의 힘으로 많은 박물관이 형성되었다. 스페인에서는 왕실의 수집품을 보관하기 위하여 설립된 왕립의 프라도미술관(1819, 페르난도 7세), 역대 황제의 수집품들을 포함하여 구성된 오스트리아 빈의 미술사박물관, 그 외에도 역대 교황과 교황청 수집품이 중심이 된 바티칸박물관, 러시아황실의 에르미타주미술관등을 들 수가 있는데 이러한 왕궁박물관의 일부는 후일 국립박물관의 기반을 마련하였다.<sup>17)</sup>

기계 문명에 의한 사회적 대 변혁을 가져온 산업혁명의 힘에 의해 개최된 만국박람회라는 행사는 박물관 발전의 기폭제가 되어 박물관 수가 급증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제1회 만국대박람회(런던, 수정궁, 1851)는 행사기간 중에 수집된 자료들을 계속해서 보관 전시하는 장소가 필요했으며 빅토리아 알버트 박물관 (Victoria & Albert Museum)이라는 공예품 박물관의 설립의 계기가 되었다. 이후 대규모 박람회는 1차 세계 대전이 발발하기까지 참가했던 각 나라 박물관 설립에 크게 공헌하였으며 유럽은 박물관 건설의 전성기를 이루었다.

같은 시기 미국의 경우 필라델피아에서 개최된 미국독립100주년기념 대박람회(1876)는 미국 박물관 발전에 촉진제 역할을 하였다. 그 결과 1876년에 약 200개였던 미국 박물관 수는 1932년에는 1,500개로, 1965년에는 5,000개, 1992년에는 8,200개로 증가 되었다. 알랜(Douglas Allan, 1960)은 미국 정부가 박물관 사업을 지원하게 된 사회적 배경에 대해, 정부가 막대한 재정적인 지원을 한 박람회를 마치고 난후에 귀중한 예술 작품을 무작정 방치하는 것에 대한 자구책으로 박물관을 설립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sup>18)</sup> 미국에서도 박람회를 위하여 가치 있게

11)위책, p.393

12)옥스퍼드 대학은 1683년 일반인에게 공개 했으며 현재는 5개로 구분된 전시관을 보유하고 있다.

13)조지엘리스버코, 양지연역, 큐레이터를위한박물관학, 김영사, 2005, p.35

14)시민왕정 이라고도 함. 1830년의 7월 혁명 이후 1848년까지 루이 필리프 Louis Philippe 재위 시기

15)아르놀트 하우저, 문학과 예술의 사회사4, 1999, p.15

16)위책, p.36

17)이난영, 박물관학, 삼화출판사, 2008, p.8

전시되었던 귀중한 물품들에 대한 보관, 전시하는 장소로서 박물관의 설립은 유럽과 마찬가지로 필연적인 것이었다.

박람회는 이제까지 귀족이상의 계급만이 누리는 사적 소유의 개념인 '창고형 뮤지엄'이 공공성 혹은 대중적인 의미로 전환<sup>19)</sup>되기 시작하였으며 기존 박물관이 표방했던 엘리트 지향적이며 선택된 일부의 사람만이 누릴 수 있었던 제한된 제도에서 모든 이에게 열린,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관람의 대중화를 이끌어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증대된 시민의 권리가 모든 시민이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는 결과를 이끌어온 사회적 현상과 흐름을 같이하며, 특히 최근의 박물관은 다원화된 시기로 개별적인 요구를 수용하는 장소로 바뀌어 가고 있다.

## 4. 박물관의 프로그램 변화

### 4.1. 박물관 역할의 변화

박물관의 역할은 초기의 보관의 개념에서 지역사회에 봉사하며 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거점 장소로 그 역할에 큰 변화를 볼 수 있다. 20세기 이전에는 박물관에서 소장품이 가장 중요한 요소였기 때문에 오랜 동안 박물관 관리자와 전문가<sup>20)</sup>가 박물관 프로그램을 관장하였다. 하지만 20세기 초에 이르러 박물관 운영 중심은 더 이상 소장품이 아니라, 정보와 교육자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으로 인식이 바뀌었다. 이러한 진보적인 인식으로 말미암아 박물관의 주된 기능은 관람객으로 하여금 흥미를 느껴서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경험을 하게 하는 곳으로 바뀌었다.<sup>21)</sup>

서상우는 새로운 뮤지엄 건축에서 '뮤지엄의 고유기능은 수집·보존, 조사·연구, 전시·교육으로 대별된다. 이러한 내재적 기능 즉 예술품을 수집하고 연구하여 전시한다는 것은 인간의 생활과 더불어 시작되었기 때문에 특별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사회적 의미와 교육적 역할에 따라 현대 뮤지엄의 역할은 교육·보급활동, 지역사회봉사, 지도·연구업무로 변환되고 있다.'고 본다. 이는 박물관이 유물을 발굴하여 수집, 전시하는 고유기능을 통해 역사와 전통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일반 대중에게 건전한 역사관과 가치관을 심는 것을 목적으로, 살아있는 교육의 현장으로 활용되어야함이 강조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 된다.

마크 패처(Marc Pachter)는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벗어나 지성과 상상력을 펼치면서 영혼을 가꾸기를 원한다. 이것이 바로 여가생활이다. 여기서 교육과 엔터테인먼트는 완전히 별개

의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서로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박물관의 과제는 관람객으로 하여금 놀이공원과는 달리 깊이 있는 의미를 간직할 수 있도록 관람을 유도하고 방향을 제시하여 편안한 경험을 만드는 것이다.'라고 말한 의미를 살펴보면 박물관은 독보적인 소장품을 가진 수장고로서 권위를 가지고 생동감 있는 전시와 체험으로 관람객과 함께하는 역할을 의미한다.

### 4.2. 박물관의 변화 내용 및 사례

박물관을 바라보는 사회적 변화요인에 의한 박물관의 문제점으로는 관람인구의 감소, 늘어나는 예술품에 의한 수장고 부족, 소비시대의 한 경향으로 거론 될 수 있는 다양한 관람자의 욕구 등이 있다. 이에 대한 박물관의 변화내용에 대한 사례는 아래와 같다.

#### (1)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박물관

과거의 무거운 분위기 그리고 폐쇄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오늘날의 박물관은 고유의 기능 뿐 만 아니라, 문화 인프라로서의 '복합 문화공간'에 대한 기능을 추가하고 있다. 이러한 기능적 변화는 기본 전시기능에 대중에게 유익한 문화공간들을 더한 경우와, 상업 지향적이며 오락 성향이 강한기능이 복합된 공간에 전시기능이 추가된 두 가지 경우를 이야기 할 수 있다.

<표 2>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박물관

명칭	퐁피두센터(1977)	국립중앙박물관(2005)	예술의 전당(1987)
주기능	문화공간	전시	문화공간
공간 구성	서점, 조각전시장, 뉴미디어전시실, 도서관, 비디오헤럴자료실, 일반열람실, 자가학습실, 카페 테리아, 극장, 우체국, 갤러리, 레스토랑	전시영역, 어린이박물관, 극장, 음악당, 도서관, 자료실, 식당, 뮤지엄숍, 열린마당, 거울못	오페라하우스, 음악당, 미술관, 디자인미술관, 서예박물관, 야외극장, 뮤지엄숍, 비터민스테이션, 자료실

#### ① 퐁피두센터

프랑스 퐁피두센터는 다양한 장르의 예술 체험 공간과 프로그램으로 관람객의 호응을 얻고 있다. 1층은 어린이들을 위한 갤러리와 애니메이션 아틀리에와 도서관 입구, 공연장이 있으며, 1층과 2층 사이 새로 만들어진 공간에는 디자인 숍과 카페가 위치하고, 3층까지 연결된 도서관은 어학 실습 기능까지 갖추고 있으며, 미술관 참고 자료실은 20세기 미술 자료를 갖추고 있다. 4, 5층에는 시대별 미술작품들을 전시하고, 6층에는 기획 전시를 위한 공간과 레스토랑이 있다. 센터 앞의 광장은 각양각색의 공연을 펼치는 거리의 예술가들과 이를 감상하는 사람들로 항상 붐빈다. 이처럼 여러 프로그램의 공간이 복합하여 다양한 목적의 관람객이 즐기는 복합공간이 주를 이룬다.

18)이보아, 성공한 박물관 성공한 마케팅, 도서출판 역사넷, 2003, p.15

19)해럴드 오즈본, 옥스퍼드미술사전, 시공사, 2002, p.390

20)큐레이터(curator), 에듀케이터(educator), 학자(scholar)

21)Neil Kotler & Philip Kotler, 박물관 미술관학, 전영사, 2005, p.20

## ② 국립중앙박물관

우리나라 국립중앙박물관의 경우 어린이들을 위한 체험공간으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박물관을 살펴보면 예약제를 실시할 정도의 많은 이용자들이 있다. 어린이 박물관은 교육적인 목적과 아이들을 동반한 가족들에 의한 관람객 증가도 한 몫을 하고 있다. 각 계층을 위해 실시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들과 대극장을 비롯하여 강당 그리고 세미나실이 갖추어져 전시와 공연, 연주 등을 하나의 공간에서 감상할 수 있다. 공간 구성을 살펴보면, 각 층에 분산되어있는 휴식 공간은 전시 관람 중 휴식을 손쉽게하고 외부에서 독립적으로 진입이 가능한 레스토랑과 정원 등이 쾌적하게 펼쳐있어 관람시간 이후에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기본 전시기능 외에 대중에게 유익한 문화공간들을 더한 경우이다.

## ③ 예술의 전당

예술의 전당은 소장품 없이 대관으로만 이루어지는 미술관이다. 서예박물관과 오페라하우스, 음악당, 콘서트홀, 리사이틀홀, 소극장에 전시공간이 추가된 경우이다. 모든 공간의 중앙에 위치한 야외극장의 음악회는 일반인 누구나 감상이 가능하며 계속 찾고 싶은 공간으로 관람객에게 친숙하게 다가가는 동기를 제공한다. 또한 다양한 계층을 목표로 한 교육프로그램과 야외테라스에서 즐기는 식사, 각 공간에 적절히 위치하고 있는 카페는 휴식과 만남의 장소를 제공한다. 가깝게는 국립국악당과 악기박물관이 인접해 있어 전통국악 공연과 미술, 서예, 오페라, 연극에 이르는 다양하고 선택적인 관람이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대중교통의 연계를 위하여 셔틀 버스 운행과, 보행자 건널목을 신설하고 주 진입구 변경 등의 노력과 오전 11시 음악회라는 관람객에게 다가가는 프로그램 변화 등은 새로운 박물관의 경향을 엿볼 수 있으며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복합 문화공간으로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

## (2) 박물관영역의 확장

1990년대 후반 일본의 '도시 재생 정책'은 '일본의 도시를, 문화와 역사를 계승하면서 풍요롭고 쾌적하며 국제적으로 활력에 찬 도시로 재생하자'는 목적으로 자국의 거품 경제가 붕괴하면서 침체에 빠진 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노력에 의해 시작되었다.

### ① 국립신미술관

도쿄 록본기힐에 위치한 국립신미술관(2007) 내부 공간에는 40년 이상을 미술랭의 별3개를 유지하고 있는 요리사 폴 보퀴즈가 운영하는 레스토랑이 정중앙 대형기둥 3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폐관시간인 6시 이후에도 입장이 가능하여 주말을 이용한 미술관 관람과 식사라는 여가코스<sup>22)</sup>로 주목 되고 있다. 미술관

22)일본에서는 주말엔 미술관에서 그림을 구경하고, 미술관에 딸린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것이 최고의 여가 코스로 자리 잡고 있다.(메마른 일상을 적시는 녹지문화, 한겨레 21, 2009. 1. 19, 제744호)

의 외벽은 대형 통유리들이 물결치듯 굽이쳐있는 빅 웨이브(Big Wave-큰 파도)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다. 자체 소장품이 없는 미술관으로 특별전 위주로 기획되어 최근의 미술경향을 능동적으로 수용하며 변화에 대응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전시장은 다양한 장르의 예술작품들이 규모에 제한 없이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가지고 있으며 층 마다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카페와 도서관등이 존재하는 복합기능의 문화공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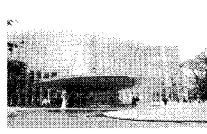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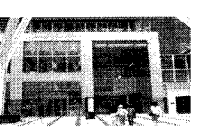



### ② 모리미술관

모리타워 52층과 53층에 들어선 '천국에서 가장 가까운 미술관'이라고 지칭되는 모리미술관(2003)은 미술, 건축, 디자인, 사진 등 장르와 매체를 가리지 않고 예술의 현재를 보여주는 6개의 전시실로 구성된 역동적 공간이다. 모리 부동산의 사설미술관으로 평일 오후 10시 주말 오후12시까지 개관 되어 직장인들이나 관광객들이 시간에 구애를 받지 않는 관람을 가능하게 한 적극적인 전시 마케팅의 사례라 볼 수 있다.

### ③ 산토리미술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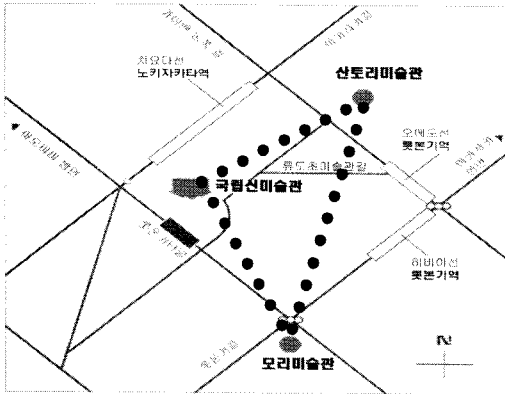
산토리미술관(2007)은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미술관으로 현대식 갤러리가 모여 있는 롯폰기 지역에서 유일하게 일본의 전통미를 고수하고 있는 곳이다. 전체의 40%를 시민에게 열린 공간으로 제공하는 미드타운에 위치하며 건설계획 때부터 모든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예술과 건축이 일체화 될 수 있는 철저한 계획을 보여 준다. 방문객들이 쇼핑, 식사, 산책을 하다 자연스럽게 예술 작품을 만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의 고객에 대한 마케팅 차원의 개방적이고 적극적인 기업 미술관의 면모를 볼 수 있다.

<표 3> 도쿄미술관영역

국립신미술관(2007)	모리미술관(2003)	산토리미술관(2007)
		
		
3F에 위치한 프랑스 식당	전망대연결 통로의 카페	각층에 위치한 카페 안내

국립신미술관과 산토리미술관 그리고 모리미술관의 이 세 미술관들은 '아트 트라이앵글<표 4>'을 이룬다. 이러한 박물관 구역이 갖는 의미는 첫째, 대중적 관람의 접근성이 좋고, 둘째 선택의 기회가 제공되고, 셋째, 다양성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며, 넷째, 도시의 문화적 아이덴티티를 만든다는 점이다.

<표 4> 도쿄미술관영역(아트트라이앵글)



로퐁기에 위치한 국립신미술관에서 출발해 미드 타운(산토리 미술관), 로퐁기 힐스(모리미술관)로 가깝게 연결되는 도쿄미술관구역은 세계의 지하철역이 인접해있으며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어 도심 속의 최고의 여가와 관광코스가 되고 있다. 여러 예술 공간이 연결되어 다양한 체험이 가능하게 한 것은 개인의 예술 향유를 도우며 관람객의 증가로 인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성취한 최근의 사회적 변화에 대한 사례가 된다.

(3) 박물관의 상업적 효과

박물관을 바라보는 일반대중의 관심에 대하여 끊임없는 변화가 없는 박물관은 생존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박물관의 상업적 전환<sup>23)</sup>'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세기 후반에 발견할 수 있는 박물관 현상 중의 하나는 경제와 관리,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에 집중하게 되었고 이와 병행하여 창조, 현대화, 팡창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는 것이다.

박물관의 재정적 독립을 위한 구겐하임미술관의 상업적인 경영 방식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최근 구겐하임미술관의 경우 글로벌 미술관을 지향하며, 소호 구겐하임, 라스베이거스 구겐하임, 스페인의 빌바오 구겐하임(Frank Gehry의 설계), 독일 베를린의 구겐하임, 베니스의 페기 구겐하임, 그리고 현재 추진중인 브라질의 리오 데 자네이로 구겐하임, 구겐하임 리투아니아, 구겐하임 아부다비<표 5>등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구겐하임 위성을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미술관의 세계화는 단순히 전시 횟수나 소장품의 증가 또는 미술관 세력 확장이 아닌, 방대한 소장품을 수장고에 방치하지 않고 월드 투어를 통해 수익을 극대화하는 국제 박물관 마케팅의 결과이다.<sup>24)</sup>

<표 5> 추진중인 구겐하임 미술관

리오데자네이로	아부다비	리투아니아
Jean Nouvel	Frank O. Gehry	Zaha Hadid

23) 베이야르와 방고지(1993)

24) 이보아, 성공한 박물관 성공한 마케팅, 도서출판 역사넷, 2003, p.32

크렌스관장(1988년 취임)<sup>25)</sup>에 의한 글로벌 미술관은 서로 다른 공간에서 문화적 경험에 대한 대중의 욕구를 증가 시켜 결과적으로는 잠재 관람객의 저변을 확대하는 것이다.<sup>26)</sup> 구겐하임은 시각적 이미지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중요하게 생각한 전시 기획의 참신함<sup>27)</sup>으로 많은 새로운 관람객을 창출하였다. 늘어난 수익으로 인한 박물관의 재정적인 안정은 소장품의 완벽한 보존 관리와 관람객에 대한 서비스 증대라는 결과를 가져온다. 박물관의 상업적 전환을 통해 새로운 관람객 확보와 몇몇 문화 대국에만 소장된 예술품이 세계 여러 곳에 순회 전시됨으로 원거리의 관람자를 위한 서비스는 물론 수장고에 갇혀있는 미술품을 통한 이익 창출이라는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위의 사례조사를 통한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 될 수 있다.

<표 6> 20세기 박물관의 새로운 경향

박물관 역할 변화	박물관의 새로운 변화내용	박물관 명칭
수집·보존 조사·연구 전시·교육	복합문화 공간 전시 공간 외에 추가된 문화공간과 오락성이 강한 공간이 추가되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서점, 도서관, 극장, 공연장, 우체국, 레스토랑, 자료실, 뉴미디어 전시실, 뮤지엄숍등이 추가됨을 확인할 수 있다.	포피두센터 (1977) 국립중앙박물관 (2005) 예술의 전당 (1987)
교육·보급활동 지역사회봉사 지도·연구업무	영역의 확장 한 지역에 여러 예술 공간이 건립되어 있어 각 공간을 이어주는 축이 형성되어 영역을 확장한다. 관람객의 접근성이 좋으며 다양한 공간을 경험할 수 있으며 도시의 문화적 아이덴티티를 만들어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가져온다.	국립신미술관 (2007) 모리미술관 (2003) 산토리미술관 (2007)
흥미를 느껴며 깊이 있는 의미를 간직하는 장소	상업적 변화 글로벌 미술관을 통한 소장품의 교환전시로 수익을 극대화 시키며 재정적인 안정을 도모한다. 낙후된 도시에 브랜드 이미지를 갖는 박물관 건립으로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가져온다.	구겐하임미술관 (1937)

5. 결론

역사적 흐름에서 박물관은 일반 대중을 위한 공공문화시설로 확장하여 나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예술품들의 수집과 보관, 전시라는 단순 사회구조에서 이루어졌던 고전적 박물관 경영은 분명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복잡한 사회구조로 바뀐 현대 소비사회에서 박물관이 제 기능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관객의 수를 늘이는 것이다.

이것은 박물관의 역할과 기능이 독립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25) 토마스 크렌스(Thomas Krens)관장. 뉴욕주립대에서 예술학, 예일대에서 경영학을 전공.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사상 초유의 관람객을 동원했다.  
26) 위책, p.32  
27) 백남준의 세상전, 모터사이클 전시회, 조르지오아르마니 의상 회고전

왜냐하면 관람객 없는 박물관은 그 존재 이유나 가치가 없고 단순히 창조적 의미만 갖는다. 때문에 관람객 즉 예술품의 가치를 인식하는 대중이 필요하며 동시에 이들을 교육시키는 의무도 있다는 점에서 박물관의 문화 사회적 역할은 중요하다.

최근 박물관을 바라보는 사회적 큰 변화를 요약하자면 첫째, 전반적인 대중의 높아진 학습 의욕에 의한 교육적 기능에 대한 변화. 둘째, 소득 수준의 향상, 셋째, 여가 시간의 확대, 넷째, 문화에 대한 가치 기준의 인식 향상을 들 수 있다. 보다 다양하고 다채로운 문화 활동의 내용을 담는 프로그램으로 도시박물관은 대중의 개별화된 요구에 대처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4장의 사례에서 본 박물관의 변화 내용은 최근 사회적 현상에 의한 우리 사회의 구조적 표현이며 그 표현에 근거한 박물관의 새로운 경향은 다음과 같다.

#### 첫째. 관람객의 박물관 접근성

도심과의 연결과 접근이 쉬워야 한다. 지하철역과 버스정류장이 인접하게 위치하여 문화공간인 박물관의 접근성이 가장 중요한 지리적 요인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 둘째. 박물관 전시방법의 개발

관람객이 원하는 경험에 우선권을 둔 전시 방법의 개발은 관람객의 기대와 욕구, 방문 동기를 파악하는 노력이 기본이 되어 대중적인 전시를 통한 새로운 관람객을 창출하며 박물관간의 소장품의 교환 혹은 대여 전시를 통하여 세계의 문화를 공유할 수 있게 한다.

#### 셋째.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

어린이부터 학생, 성인, 고령자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지역 특성을 살린 사막 지역을 헬리콥터나 지프차를 타고 설치미술을 찾아 감상하는 투어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어린이에게는 놀이터로 어른에게는 파티의 장소로 인식되어지는 하나의 엔터테인먼트 공간으로 변화하는 관람객 흥미를 유발하는 공간이어야 한다.

#### 넷째. 박물관 경영전략의 개발

현대 박물관 경영의 핵심은 관람객 개발이다. 관람객은 박물관의 생명이며, 그 자체가 박물관의 존재 당위성에 대한 합리적 논리를 제공해 준다. 또한 관람자 수 증가와 박물관 수익구조의 개선 등으로 창출되는 이익의 재투자는 결국 관람객에게 돌아가며 서비스 증대로 인해 박물관의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다. 경영전략의 개발은 결국 관람객을 이해하는데 있으며 전시와 연구에 따르는 노력보다도 앞서야 할 것이다.

#### 다섯째. 시대를 앞서가는 사고의 전환

대중의 박물관에 대한 관심의 증대를 위하여 이념적인데 얽매지 않고 한발 앞선 문화 선진화를 위한 정치적 중립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얻을 수 있는 지원규모 축소에 대한 경제적인 자립, 사회적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할 사고의 여유가 필요하다.

## 참고문헌

1. 국립중앙박물관 60년, 국립중앙박물관, 서울, 2006
2. 서상우, 현대박물관건축, 기문당, 서울 1995
3. 이기태, 민속박물관의 사회교육, 민속박물관의 세계, 온양박물관, 1994
4. 이난영, 박물관, 삼화출판사, 서울, 2008
5. 이보아, 성공한 박물관 성공한 마케팅, 도서출판 역사넷, 서울, 2003
6. 아놀드 하우스, 문학과 예술의 사회사1,4, 창작과 비평사, 서울, 1999
7. 조지엘리스 버코, 양지연, 큐레이터를위한박물관학, 김영사, 서울, 2005
8. 크리스토퍼 히버트, 메디치가 이야기, (주)생각나무, 서울, 2001
9. 해롤드오즈본, 미술연구소역, 옥스퍼드미술사전, 시공사, 서울, 2002,
10. Basin G. The museum Age, De Soer Brussels, 1967
11. D.R Cameron, Are Art Galleries obsolete, Peter Martin Associates, Toronto, Canada, 1958
12. Neil Kotler&Philip Kotler, 한종훈역, 박물관미술관, 전영사, 서울, 2005
13. E.H.Carr, 역사란 무엇인가, 김승일역, 범우사, 1998
14. 목수현, 일제하박물관의 형성과 그 의미, 서울대 석사논문, 2000
15. 문정록, 17세기 유럽미술관의 출현이 미술과 대중의 관계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박물관건축학회 논문집, 통권 제5호 서울, 2001

<접수 : 2009. 3. 31>